# KCC 헤인즈 '펄펄'

## 13시즌 연속 뛰는 외국인 선수… 대체 선수로 합류
## 특별귀화 라건아 보유 KCC, 정상급 선수 추가 영입

많은 이들이 '이제는 힘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애런 헤인즈(40·KCC)는 여전했다.

프로농구 전주 KCC에 대체 선수로 합류한 헤인즈가 선두 경쟁에서 중요했던 2경기에서 명성에 어울리는 맹활약으로 전창진 감독을 활짝 웃게 했다.

22일 구단에 따르면, KCC는 지난 21일 고양체육관에서 벌어진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과의 경기에서 87-80으로 승리, 4연승을 달렸다.

33승15패로 정규리그 우승에 2승만 남겨뒀다. 2위 울산 현대모비스와 승차를 4경기로 벌려 선두 경쟁에 마침표를 앞두고 있다. 앞서 20일에는 현대모비스를 84-74로 꺾었다.

17일 DJ존슨의 대체 선수로 합류한 헤인즈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헤인즈는 현대모비스전에서 8점 2리바운드 2어시스트, 오리온전에서 19점 8리바운드 2어시스트 2스틸을 올렸다.

2경기에서 평균 15분1초만 뛰고도 13.5점 5리바운드 2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수치적 기록을 떠나 미들레인지 구역에서 KCC의 공격 다양화를 이끌었다.

패스 능력이 뛰어나 수비가 대처하기 매우 어려운 유형의 선수다. 경기를 거듭해 슛 감각까지 되찾는다면 강력한 또 하나의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 헤인즈가 복귀하자마자 상대한 두 팀은 KCC에 앞서 헤인즈 영입을 검토했던 팀들이다.

먼저 살핀 건 현대모비스다. 유재학 감독은 헤인즈를 불러 기량과 감각을 점검했다.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공격 루트, 센스 등이 매력적이지만 숀 롱이 부진하거나 다칠 경우, 센터 공백을 채우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헤인즈는 상대 수비를 잘 무너뜨리지만 높이와 수비에선 약점이 뚜렷한 편이다. 나이가 많고, 부상 전력도 있다. 현대모비스가 기존에 함께 한 버논 맥클린을 선택한 배경이다. 단기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리온과도 만났다. 데빈 윌리엄스의 플레이와 코트 밖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강을준 감독은 테스트를 통해 헤인즈 영입을 확실시했다. 하지만 최종 단계에서 구단 윗선이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모비스가 코칭스태프의 의견이 반영된 결정이라면 오리온은 그러지 못했다.

2008~2009시즌 도중 서울 삼성에 합류해 KBL 경력을 시작한 헤인즈는 이번 시즌까지 13시즌 연속으로 활약한 최장수 외국인선수다.

과거 현대모비스, 창원 LG, 고양 오리온, 서울 SK 등에서 뛰었다. SK에서 가장 긴 6시즌을 보냈다.

현대모비스(2009~2010), 오리온(2015~2016)의 챔피언 등극을 도우며 우승 청부사로 불렸다. 2017~2018시즌에는 소속팀 SK가 챔피언에 올랐지만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부상을 입어 플레이오프에 나서지 못했다.

외국인선수 역사에서 '살아 있는 전설'이다. 정규리그 통산 540경기에 나서 역대 외국인선수 중 유일하게 500경기 출전 기록을 보유했다.

통산 득점부문에서는 1만807점으로 서장훈(1만3231점·방송인)에 이어 2위다. 외국인선수 중 유일한 1만 득점자다.

KCC는 라건아가 건재하고, 국내 가드진이 탄탄하다. 최우수선수(MVP)급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송교창과 해결사 이정현의 존재도 크다. 헤인즈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KCC는 타일러 데이비스의 대체 선수로 수준급 외국인선수를 영입할 방침이다. 특별귀화 라건아를 보유했기 때문에 몸값 상한선을 지키면 라건아 외에 2명의 외국인선수를 더 보유할 수 있다.

/뉴시스

프로농구 전주 KCC 대체 선수로 합류한 애런 헤인즈. 〈사진=KBL 제공〉

## 프로농구 최고의 인기스타를 찾습니다

### 내달 5일까지 인기상 투표
### KBL 등록 선수 전원 대상
### 추첨 통해 다양한 상품 증정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KBL 통합 웹사이트(www.kbl.or.kr/KBL 애플리케이션 포함)를 통해 최고의 인기 선수를 선정하는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포카리스웨트 인기상' 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인기상 투표는 KBL 등록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KBL 웹사이트 회원 1인당 1일 1회 참여할 수 있으며, 1회당 총 2명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단, 동일 소속팀 선수는 1명으로 제한된다.

지난 2019~2020시즌에는 원주 DB 허웅이 8239표로 인기상을 수상했다.

한편 KBL은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인기상 투표에 참여한 팬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포카리스웨트 타올, 보틀, 마스크 세트(10명), 구단별 미니 MD 세트(10명), 커피 기프티콘(10명) 및 포카리스웨트(캔) 기프티콘 (100명)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뉴시스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소프트테니스 최강자 옥석가리기

### 순창서 개최 전국대회 성료… 순창초, 男 초등부 우승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 순창군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제42회 회장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정인선)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박경만)가 주관, 전북도와 순창군, 순창군체육회가 후원해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순창군 공설운동장 소프트테니스코트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스포츠대회인 만큼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선수단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일찌감치 무관중 경기로 치루기로 결정했다. 선수만 해도 1,000여명이 경기에 출전함에 따라 경기 일정을 10일간으로 연장해 위험도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경기 방식은 초·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눴으며 단체전은 예선리그를 걸쳐 결선 토너먼트, 개인전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결과 단체전에서는 ▲일반부 남자 대구 달성군청, 여자 NH농협 ▲대학부 남자 인하대학교 ▲고등부 남자 충남 홍성고등학교, 여자 경북 조리과학고등학교 ▲중등부 남자 순창중학교, 여자 충북 옥천여중학교, 초등부 남자 순창초등학교, 여자 대전 내동초등학교가 각각 우승컵을 차지했다.

대회 운영을 맡은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김태주 사무처장은"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회를 개최하게 해주신 황숙주 순창군수님과 빈틈없는 방역지원과 경기장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관리해준 순창군 스포츠마케팅 관계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상희 체육진흥사업소 소장은 "스포츠마케팅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굴뚝없는 효자산업"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철벽방어를 바탕으로한 크고 작은 스포츠 대회를 적극 유치해 침체된 지역상권에 힘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야구대표팀, 사전 명단 154명 확정… 추신수·최지만 포함

2008년 베이징 여름 밤의 영광을 재현할 도쿄올림픽 야구대표팀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KBO(총재 정지택)는 지난 19일 2020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 사전 등록 명단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 제출했다. 6월 중 확정될 최종 엔트리 24명은 이날 제출된 명단에 들어있는 선수들 중에서만 선발 가능하다.

사전 등록 명단에 포함된 선수 154명은 KBO 리그 소속 선수 136명(FA 포함), 해외 리그 소속 선수 4명, 아마추어 선수 14명으로 구성됐다.

명단은 지난 15일 개최된 KBO 기술위원회에서 확정됐으며 기술위원회는 선발 과정에서 선수의 최근 성적, 컨디션, 국제대회 경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아마추어 선수 14명의 선발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의 추천을 통해 이뤄졌다.

대표팀 합류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추신수(SSG)는 사전 등록 명단에 포함됐으며, 해외리그 소속선수로는 MLB에서 뛰고 있는 양현종(텍사스), 최지만(탬파베이), 김하성(샌디에이고), 박효준(뉴욕 양키스)이 포함됐다. /뉴시스